

#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

## Internet Addiction a In Correlation to Friendship and Internet Use of Adolescent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이숙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남윤주

Dept. of Home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 : Lee Sook*  
Dept. of Home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Nam Yun Ju

###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 of friendship and internet use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he subjects were 117 middle and 106 high school adolescents living in Kwang-ju city. Cronbach's  $\alpha$ , t-test,  $\chi^2$ -test, ANOVA, Duncan's test were employed in analyzing the data by using SPSS 10.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of all, most adolescents had a best friend and maintained an affirmative friendship showing high social function and satisfaction. And it was also found that internet use has been settled as a part of daily life among adolescents and over majority of the subjects reported themselves as internet addicts.
- Secondly, boys had more friends than girls, but the frequency of interaction with their friends was lower than for girls. Girls showed higher scores in function and satisfaction with friends than boys. And girls used the

Corresponding Author : Sook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500-757, Korea  
Tel : 82-62-530-1323 E-mail : sookleej@hanmail.net

\* 본 논문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internet longer than boys.

- Thirdly, variables of internet friends and internet us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on internet addiction. Groups using the internet frequently, more than usual, and groups using the internet to relax and enjoy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internet addiction.

**주제어(Key Words):**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인터넷 사용(internet use), 친구관계(friendship), 청소년(adolescent)

## I. 문제의 제기

현대 사회를 일컬어 흔히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정보화 사회란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의 대량 보급과 정보통신체계의 발달은 '전자 지구촌' 또는 '디지털 혁명'으로 특징지어지는 지식 정보화 사회를 가져왔으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의 영향은 이제 기계적 편리함의 수준을 넘어서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서 개인이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급속히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 왔으며 갈수록 인간과 인간사이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형성에까지도 컴퓨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나은영, 1999).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유·무선 통신매체, 컴퓨터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구성원에게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이다(황진구, 1999).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컴퓨터 활용이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흐름에 낙오된다는 불안감이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이어졌고, 정부차원에서 통신보급에 앞장서서 추진한 결과 98년에 11.5%였던 국내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2002년도에는 58%까지 상승하였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 이러한 인터넷 사용자 수는 최근들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다고 보겠다.

한편, 한국 인터넷정보문화센터(2000)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19세의 이용자수가 604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성세대에 비해서

새로운 것, 모험적인 것, 이질적인 것에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몰입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전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훨씬 유행에 민감하고 사교적이었으며,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생활적응 능력도 뛰어났다는 긍정적인 보도도 있지만,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기 어렵다든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못 견디는 등 인터넷 중독현상과 그 부작용 등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용어는 Goldberg(1996)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Young(1996)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용어로 병리적인,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을 일컫는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 장애가 알콜 중독이나 도박과 같은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며,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통제상실, 갈망과 내성 증상, 사회적 철수, 결혼 불화, 학업실패, 과도한 재정적 부채, 실직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최근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 할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최근 초·중·고교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컴퓨터 중독실태 및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청소년들의 30%가 중독경향이 있으며, 남학생들은 무려 40%가량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일보, 2000)고 한다. 또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 청소년의 11%가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0). 이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상당히 몰입되어 있고 그 중에는 병리적인 현상을 드러내는 인터넷 중독자들

이 상당 수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사용유형 등과 같은 변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선행연구(문정혜, 2000; 조춘범, 2001)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의 주 이용 층을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은 발달 단계상 신체적, 환경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이에 따른 도전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아동기까지 부모, 형제 등 가족과의 관계가 주된 사회적 관계였던 것과는 달리,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욕구가 강해지면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래집단에 상대적으로 몰입하려는 발달적 특성을 갖고 있다. Hartup(1993)에 따르면 친구관계는 애정이나 관심, 흥미 및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타인과 접촉을 유지하는 이원 관계이며, 독특한 애착, 친밀 관계를 유지하는 상호 작용을 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친구 관계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정서적·인지적 자원을 제공하며 자기 인식과 자아개념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고 한다. Hartup과 Stevens(1997)는 친구관계가 일생을 통해 개인의 복지와 적응에 중요하며 생애 주기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는 청소년의 발달과 복지,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상대적으로 친구관계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사회적 동조 행동이 많이 증가하며, 친구들로부터 얻는 지원과 이해 및 인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중독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친구관계의 만족도와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학업 중심으로 학교 생활과 여가 시간이 짜여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이희연, 1994).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답답하고 통제되어 있는 현실에서 탈피하고 자신의 욕구

를 분출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인터넷이 인간관계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서주현, 2001). 따라서 최근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인터넷 통신상의 친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일상생활에서의 친구관계 못지 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중독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들이 야기되는 반면에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같은 주요한 인간관계 역시 인터넷을 통해 상당수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여지껏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만나는 친구 수, 친구 관계 유형,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 친구관계 지속 기간, 친구관계 밀도 등의 관계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일반적 특성과 친구사이에서 경험되는 사회·정서적 지원 및 갈등, 경쟁 만족도 등을 포함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미란 2002). 친구관계의 기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Berndt와 그의 연구자들(Berndt & Keefe, 1995 ; Berndt & Miller, 1993 ; Berndt & Perry, 1986)은 친구관계의 기능을 자기 노출, 친사회적 행동, 자아존중감 지지, 놀이활동, 친밀, 충성, 갈등과 경쟁, 상호 작용 빈도로 분류했다. 최근에 개발된 Mcgill의 친구관계 측정도구(Mendelson & Aboud, 2000) 중 친구관계의 기능 부분에서는 친구관계의 긍정적 기능으로 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함, 신뢰, 자아개념 증진, 정서적 안정의 6개 하위 영역의 기능과 부정적 감정으로 갈등, 경쟁을 다루고 있다. 이은혜·고윤주(1999)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는 Fuman과 Buhrmester(1985), Mendelson과 Aboud(2000)의 연구를 참조하여 친구의 기능을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 갈등, 경쟁,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감으로 구분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관한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과 친구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차차 늘어나고 는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친구관계를 여러 가지의 변인들 중에서 하나로 어느 한 측면만을 다루고

있을 뿐 친구관계의 여러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인터넷 사용 및 중독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드문 실정이다. 즉,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인터넷 중독 연구에서 대부분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연구되기보다는 청소년의 학교 생활 변인이나, 대인 관계 변수들 중의 하나로서 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동안 보고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실제 생활에서의 친구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황수정, 2000; 송원영, 2000; 조춘범, 2001; 한복희, 2001)가 있는 반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안석, 2000; 조남근·양돈규, 2001)도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서주현(2001)의 연구는 청소년의 친구 관계를 일상생활의 친구와 통신상의 친구로 나누어 인터넷 중독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의 친구관계의 기능은 인터넷 중독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통신상의 친구관계는 친구 집단 크기, 친밀도, 만족도, 기능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서의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 및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사회적이고 배타적인 친구관계를 나타낸다(김정윤, 2000; 배선영, 1999; 오현미, 2000)고 보고되고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신재은, 2000),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는 경향이다(도현심, 2000; 김미란, 2002). Fuman과 Buhmester(1985)는 12-15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동성친구와 상호작용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내용에 있어서도 자기노출과 정서적 지원의 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미란(2002)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도움 및 인정의 기능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고 경쟁과 만족도는 남자가 더 높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에 관한 연구들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주로 인터넷을 더 오랜 시간 사용하였고, 인

터넷 사용 유형에서도 남학생은 게임·오락형이, 여학생은 대인관계 추구형이 많았다고 하였다. 인터넷 중독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손성원, 2002; 한복희, 2001; 라민오, 2001; 서주현, 2001; 양소남, 1996)는 보고가 많은 경향이 있으나 홍경희(2002)나 양소남(1986)의 연구에서처럼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성에 따라 청소년들의 친구관계 및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 중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과 기능 및 만족도, 인터넷 사용변수 등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친구관계를 일상생활에서의 친구와 인터넷 통신에서의 친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청소년의 친구관계유형에 따라 인터넷 중독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이 점차 심각해져 가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 실태가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밝혀봄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 및 중독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과 기능 및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 2)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및 중독성은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과 기능 및 만족도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에 차이가 있는가?
  - 2) 인터넷 사용 변수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시의 2개 구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326명(4개 중학교와 4개 고등학교 총 8학급)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시기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라고 보고(황리리, 1996)되었기 때문이다.

수집된 자료 중 무응답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등 103개를 제외한 총 223명만의 자료가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학생이 104(46.6%)명이고 여학생은 119(53.4%)명이며, 학년에 따른 분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17(52.5%)명이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106(47.5%)명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이 127명(57.0%), 고졸이 82명(36.8%), 중졸 이하가 14명(6.3%)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124명(55.6%), 전문대졸 이상이 79명(35.4%), 중졸 이하가 20명(9.0%)의 순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어머니의 교육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 유형은 사무직이 60명(26.9%), 관리직이 49명(22.0%), 자영업이 46명(20.6%), 피고용 기능공이 31(13.9%), 전문직이 28명(12.6%), 단순 노동직 및 무직이 9명(4.0%)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전업 주부가 137명(61.4%), 취업주부가 86명(38.6%)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 1) 친구관계에 대한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과 친구관계의 기능 및 만족도로 크게 나누어 평가하였다.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들(이은혜,

1999 ; 김미란, 2002 ; Adams & Blieszner, 1994 ; Homefolk & Stokes, 1988)을 참조하여 친구 수와, 친구 관계의 상호작용 빈도, 친구에 대한 만족, 친구관계의 지속기간 등을 평가하는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친구 수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의 수로서 단짝친구, 친한 친구 수, 집단 내 친구 수, 이성 친구 수, 통신상의 친구 수, 통신상의 이성 친구 수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통신상의 친구란 통신을 위주로 하는 친구로서 실제로는 거의 만나지 않은 친구를 말한다. 친구관계의 상호작용 빈도에 관한 척도는 김미란(2002)의 연구에서 Berndt와 Keefe(1995)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상호작용빈도 척도는 총 5문항(Cronbach's  $\alpha=.74$ )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있고 모든 문항은 전혀 없다(1점), 한 달에 한 번(2점), 일주일에 한 번(3점), 일주일에 3-4번(4점), 매일(5점)의 순으로 배점하였다. 친구관계의 지속기간은 개월 수를 묻는 객관식 문항으로 1문항으로 구성되고, 또한 일상생활 친구와 인터넷 친구에 대한 만족을 묻는 문항을 각각 1문항씩 포함시켰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와, 고민을 상담하는 친구,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 할 때 만나는 친구를 묻는 3문항이 포함되었다.

친구관계의 기능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이은혜(1999)의 친구관계 질 척도를 중·고등학생에게 맞도록 '너는~하니?' 식의 질문내용을 '나는~한다' 식의 서술문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친구관계의 기능은 모두 8개의 하위 척도별로 4문항씩 3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렇다(2점), 때때로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 순으로 배점하였다. 하위 척도는 친구의 긍정적 기능 6가지(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과 부정적 기능 2가지(갈등, 경쟁)로 구성된다. 전체적인 친구관계 기능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1이고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 .77-.91 사이에 분포되었다. 친구관계의 만족감척도는 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Cronbach's  $\alpha=.90$ )이다.

## 2) 인터넷 사용에 대한 척도

인터넷 사용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서주현, 2001; 이병국, 1999)을 참조하여 컴퓨터 사용에 관한 5문항(컴퓨터사용 기간과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용도, 개인 소유 여부, 그리고 인터넷 연결 여부)과 인터넷 사용에 관련된 13문항(사용기간, 사용 빈도, 한번 접속하면 걸리는 시간, 일주일 평균 사용 시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 사용 장소, 시작 동기, 사용 목적, 이용 단점, 이용 장점, 사용 유형)등의 총 18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인터넷 사용 유형은 선행연구들(이병국, 1999; 윤영민, 2000; 서주현, 2001)을 참조하여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따라 총 서비스가 이용 시간을 기초로 분류하였다. 정보 검색형은 공개자료실, 온라인 학습, 공부방, 전자도서관, 정보검색센터 이용을 포함하고, 대인관계 추구형은 대화방, 토론, 게시판, 전자우편, 동호회, 팬클럽의 서비스 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 오락형은 게임, 온라인게임, 취미, 오락, 방송, 연예, 스포츠, 레저 등의 서비스 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Young의 온라인 중독 센터(Center of On-Line Addiction)에서 제작한 인터넷 중독진단 도구를 김주한(1996), 양소남(1996), 김세영(1999), 이주연(2000), 서주현(2001)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대상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Young의 일반적인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Young, 2000).

① 20 ~ 39점 : 평균적인 온라인 이용자. 때로는 너무 오래 온라인 상에서 서핑을 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이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② 40 ~ 69점 : 통신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많다. 그러한 문제들이 실제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③ 70 ~ 100점 : 통신 때문에 생활에 중대한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Young의 등급별 기준을 참조하여 구분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 3. 연구 절차

예비조사(2002년 7월 1일)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남·녀 각각 1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시의 목적은 검사의 내용 이해와 질문의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검사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본 조사는 2002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간 광주시 8개 학교에서 한 학급씩 총 3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각 학급 담임교사의 지도 하에 실시되었고 검사 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성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 및 중독

먼저 성에 따른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집단 친구 수, 이성 친구 수, 통신상의 친구 수, 가장 친한 친구, 친구관계의 상호작용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

집단 친구 수에서는 친구가 없는 비율은 남학생 4명(3.8%)과 여학생 4명(3.4%)의 차이가 없었으나 친구가 있는 경우 여학생은 3-4명의 집단친구 비율이, 남학생은 주로 9명 이상의 집단 친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미란(2002)의 연구에서는 집단 친구 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차이나는 것으로 여학생은 더 작은 집단 친구를, 남학생은 더 큰 집단 친구를 사귀다고 볼 수 있다. 이성 친구가 없는 경우는 남학생 비율(71.2%)이 여학생(62.2%)보다 높았으며, 여학생은 3명, 1명, 2명 순으

<표 1> 성에 따른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

(N=223)

변인		성별		$\chi^2$
		남 N(%)	여 N(%)	
집단 친구 수	0-2명	4( 3.8%)	4( 3.4%)	8.62*
	3-4명	45(43.3%)	66(55.5%)	
	5-8명	35(33.7%)	41(34.5%)	
	9명이상	20(19.2%)	8( 6.7%)	
	계	104(100%)	119(100%)	
이성 친구 수	없다	74(71.2%)	74(62.2%)	7.62*
	1명	17(16.3%)	13(10.9%)	
	2명	4( 3.8%)	11( 9.2%)	
	3명이상	9( 8.7%)	21(17.6%)	
	계	104(100%)	119(100%)	
인터넷통신 친구 수	없다	40(38.5%)	30(25.4%)	11.74**
	1-4명	14(13.5%)	36(30.5%)	
	5-8명	19(18.3%)	14(11.9%)	
	9명이상	31(29.8%)	39(32.2%)	
	계	104(100%)	119(100%)	
친한 친구	인터넷상의 친구	10( 9.6%)	3( 2.5%)	5.08*
	실제 생활 친구	94(90.4%)	116(97.5%)	
	계	104(100%)	119(100%)	
친구관계상호작용	하(주 1-2회)	57(54.8%)	41(34.5%)	16.97***
	중(주 3-4회)	42(40.4%)	52(43.7%)	
	상(주 5회 이상)	5( 4.8%)	26(21.8%)	
	계	104(100%)	119(100%)	

\*P<.05 \*\*P<.01 \*\*\*P<.001

로 분포한 반면에 남학생은 1명, 3명, 2명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통신상의 친구가 없는 경우도 남학생의 비율(38.5%)이 여학생(25.4%)보다 높았으며 친구 수에 있어서 여학생은 9명 이상, 1-4명, 5-8명으로 분포되어 있고 남학생은 9명 이상, 5-8명, 1-4명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가장 친한 친구에는 남녀 모두 인터넷보다는 실제 친구라고 대답하였는데, 남학생이 인터넷상의 친구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여학생은 실제 친구라고 대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에서는 남학생이 하(55%), 중(40%), 상(5%) 순으로 분포된 반면에 여학생은 중(44%), 하(35%), 상(22%) 순으로 분포되었다. 남학생은 '하' 집단에서 54.4%로 여학생보다 많은 반면에 여학생은 '상' 집단에서 21.8%로 남학생보다 많

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더 빈번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성에 따른 친구관계의 기능과 만족도는 정서안정, 친밀감, 인정, 갈등,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안정, 친밀감, 인정, 갈등, 친구관계의 만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친구관계에서 더 많은 사회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결론을 가져온다. 친구 관계의 기능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이은혜, 1999; 김정윤, 2000; 배선영, 1999; 배재현·최보가, 2001; 오현미, 2000; Bemdt, 1982; Furman et al., 1985; Parker & Asher, 1993) 결과와 일치된 결과이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관계의 만족감을 높게 느끼는 것은 이은혜

〈표 2〉 성에 따른 친구관계의 기능과 만족도

(N=223)

변인	정서안정		친밀감		신뢰		인정		도움		즐거움		갈등		경쟁		만족도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 별	남	3.35	.83	3.16	.84	3.76	.94	2.93	.81	3.48	.77	3.67	.82	2.48	.85	2.56	1.05	3.08	.97
	여	3.80	.71	3.70	.79	3.99	.77	3.22	.79	3.68	.71	3.85	.71	2.78	.88	2.47	.97	3.36	.86
	t값	-4.45***		-4.96***		-1.92		-2.70**		-1.98		-1.72		-2.57*		.68		-2.26*	

\*P&lt;.05 \*\*P&lt;.01 \*\*\*P&lt;.001

(1999), 서주현(2001)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 2. 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및 중독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터넷 중독의 경향은 최저 20점에서부터 최대 94점까지 분포되었는데 Young의 구분(20-39점: 일반청소년, 40-69점: 중독청소년, 70점-100점: 심한 중독 청소년)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조사 대상자 중 102명(45.7%)이 일반 인터넷 사용자이며, 중독 청소년이 105명(47.1%), 심한 중독 청소년이 16명(7.2%)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4.3%가 인터넷 중독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들(김세영, 1999; 윤영민, 2000; 이주연, 2001)에서 제시한 바 있듯이 청소년에 있어서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성에 따라 인터넷 사용과 중독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인터넷 사용 변수 중 인터넷 사용 기간과 한번 인터넷을 접속하면 지속하는 시간, 이용 장점, 이용 단점, 이용 유형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며, 인터넷 중독성은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에서는 유의한 변수들만 제시하였다).

먼저 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기간에 있어서 남학생은 1-2년이 42.7%로 여학생보다 많은 반면에, 여학생은 3년 이상이 45.2%로 남학생(25.3%)보다 사용 기간이 더 오래되었다. 한번 인터넷을 접속하면 지속하는 시간도 남학생은 1-2시간 이내가 41.3%, 1시간 이내가 36.5%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학생은

1-2시간 이내가 38.7%, 2-3시간 이내가 23.5% 순으로 나타나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한번 접속하면 더 오랜 시간 접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주로 인터넷을 더 오랜 시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서주현, 2001; 양소남, 1996)들과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 장점을 살펴보면 남학생(44%)과 여학생(45%) 모두 '정보 획득'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스트레스 해소'를 여학생은 '대인 관계 형성'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 단점에서 남학생은 31%가 자아정체감 혼란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24%가 공부할 시간을 뺏긴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학생은 38%가 인터넷 중독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20%가 공부할 시간을 뺏긴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 유형도 남학생은 게임 오락형이 66%, 대인관계 추구형이 17%, 정보 탐색형이 18% 순이며, 여학생은 대인관계 추구형이 53%, 게임 오락형이 34%, 정보 탐색형이 13%로 남학생은 주로 게임 오락형, 여학생은 주로 대인관계 추구형이 많이 나타나는 특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사용 유형에서 남학생은 게임·오락형, 여학생은 대인관계추구형이 많다는 선행연구(손성원, 2002; 한복희, 2001; 라민오, 2001; 서주현, 2001; 양소남, 1996)들과 일치하였다.

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홍경희(2002), 양소남(1986), Gunn(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요즘은 성별에 따른 구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있으므로 성에 따른 분류보다는 인터넷을 어느 정도로, 어떤 목적으



<표 3> 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N=223)

변인		성별		
		남 N(%)	여 N(%)	$\chi^2$
인터넷 사용 기간	1년 미만	14(13.6%)	10( 8.4%)	15.24**
	1-2년 미만	30(29.1%)	17(14.3%)	
	2-3년 미만	34(32.0%)	38(31.9%)	
	3-4년 미만	18(17.5%)	28(23.5%)	
	4년 이상	8( 7.8%)	26(21.8%)	
	계	104(100%)	119(100%)	
한번 접속하면 지속하는 시간	1시간이내	38(36.5%)	26(21.8%)	13.28**
	1-2시간이내	43(41.3%)	46(38.7%)	
	2-3시간이내	14(13.5%)	28(23.5%)	
	3-4시간이내	3( 2.9%)	14(11.8%)	
	4시간이상	6( 5.8%)	5( 4.2%)	
	계	104(100%)	119(100%)	
이용 장점	정보를 획득	46(43.7%)	53(44.5%)	12.34*
	학습에 유용	6( 5.8%)	13(10.9%)	
	대인관계 형성	16(15.5%)	27(22.7%)	
	스트레스 해소	36(35.0%)	22(18.5%)	
	기타		4( 3.4%)	
	계	104(100%)	119(100%)	
이용 단점	음란물 접촉	15(14.7%)	17(14.3%)	11.20*
	자아정체감 혼란	33(31.4%)	23(19.3%)	
	가상의 혼란	4( 3.9%)	9( 7.6%)	
	인터넷 중독	23(22.5%)	45(37.8%)	
	공부할 시간을 빼김	25(23.5%)	24(20.2%)	
	기타	4( 3.9%)	1( 0.8%)	
계	104(100%)	119(100%)		
인터넷 유형	정보 탐색형	18(17.5%)	16(13.4%)	32.84**
	대인관계추구형	17(16.5%)	63(52.9%)	
	게임 오락형	69(66.0%)	40(33.6%)	
	계	104(100%)	119(100%)	

\*P<.05 \*\*P<.01 \*\*\*P<.001

로 이용하는가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을 살펴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고 보겠다.

### 3.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 1) 친구관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

와 같다. 먼저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 변수들 중에서 인터넷 중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로 는 인터넷 통신상의 친구 수, 인터넷 통신상의 이성 친구 수, 인터넷 친구에 대한 만족, 스트레스를 해소 할 때 만나는 친구로 나타났다. <표 4>에서 <표 6>까 지는 유의한 결과들만 제시하였다.

인터넷 통신상의 친구 수가 9명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 보다 인터넷 중독 점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통신상의

〈표 4〉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N=223)

독립 변인 범주	변인	구분	종속 N(%)	인터넷 중독			
				M	SD	D	F(t)
친구 관계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통신상의 친구 수	없다	71(31.4%)	39.11	14.77	a	8,793***
		1-4명	50(22.4%)	44.62	15.18	ab	
		5-8명	33(14.8%)	41.39	12.56	a	
		9명이상	69(30.9%)	52.06	17.37	b	
	인터넷 통신상의 이성친구 수	없다	120(53.8%)	41.29	15.54	a	9,012***
		1-4명	60(26.9%)	44.02	14.65	a	
		5-8명	19(8.5%)	50.79	13.98	ab	
		9명이상	24(10.8%)	58.08	17.58	b	
	인터넷 친구에 대한 만족(N=187)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22(9.9%)	43.18	16.55	ab	2,515*
			93(41.7%)	49.80	14.80	b	
			66(29.6%)	42.50	15.26	a	
			3(1.3%)	41.33	29.19	a	
스트레스를 해소 할 때 만나는 친구	인터넷 통신상의 친구 실제 생활의 친구	40(17.9%)	50.80	18.18		2,425*	
		183(82.1%)	43.30	15.50			

\*P&lt;.05 \*\*P&lt;.01 \*\*\*P&lt;.001

친구가 없거나 5-8명 정도의 친구가 있을 때 인터넷 중독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인터넷 통신상의 친구는 9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인터넷 중독점수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넷 통신상의 친구수가 9명 이상인 경우에 인터넷 통신에 몰두하는 시간이나 비중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통신상의 이성친구가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인터넷 통신상의 이성친구 수가 9명 이상인 집단에게서 특히 인터넷 중독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친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집단에서 중독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거나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집단의 중독 점수가 다른 집단보다 낮았다. 스트레스를 해소 할 때 실제 생활의 친구를 만나는 집단이 인터넷 통신상의 친구를 만나는 집단보다 중독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통신상의 친구가 9명 이상이거나 인터넷 통신친구에게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만나는 친구가 인터넷 통신친구일

경우에 인터넷 중독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친구관계의 기능과 만족도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 기능의 하위영역 8개와 만족도를 각각  $M \pm 1/2 SD$ 를 사용하여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친구 관계 기능 중 도움과 갈등 변인에서만 인터넷 중독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친구관계의 도움 기능에서 '하' 집단의 중독 점수가 '상' 집단의 중독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갈등변인에 있어서는 갈등이 '하'인 집단이 '중'이나 '상' 집단에 비해 인터넷 중독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친구관계의 만족도가 '하'인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인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친구간에 도움이 적거나 갈등이 높고, 친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거나 또는 친구와 어울려 노는 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인터넷에 몰입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친구관계의 기능과 만족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

(N=223)

독립 변인 범주	종속			인터넷 중독			
	변인	구분	N(%)	M	SD	D	F
친구 관계의 기능	정서적 안정	하	56(25.1%)	43.00	16.35		.39
		중	893(9.9%)	45.07	16.29		
		상	78(35.0%)	45.33	16.19		
	친밀감	하	84(37.7%)	44.64	16.58		.01
		중	70(31.4%)	44.41	15.03		
		상	69(30.9%)	44.87	17.18		
	신뢰	하	56(25.1%)	44.96	14.85		.89
		중	96(43.0%)	43.10	16.71		
		상	71(31.8%)	46.46	16.63		
	인정	하	54(24.2%)	42.54	14.98		.81
		중	94(42.2%)	46.04	15.66		
		상	75(33.6%)	44.40	17.75		
도움	하	59(26.5%)	48.85	17.21	a	2.81*	
	중	86(38.6%)	42.69	15.40	ab		
	상	78(35.0%)	43.62	15.98	b		
교제의 즐거움	하	64(28.7%)	43.19	15.02		.37	
	중	89(39.9%)	45.37	17.00			
	상	70(31.4%)	45.04	16.43			
갈등	하	69(30.9%)	40.25	14.23	a	4.09*	
	중	91(40.8%)	45.75	16.07	b		
	상	63(28.3%)	47.86	17.68	b		
경쟁	하	90(40.4%)	43.77	16.28		.96	
	중	80(35.9%)	46.63	17.18			
	상	53(23.8%)	43.13	14.59			
만족도	하	90(40.4%)	53.37	15.97	a	55.20***	
	중	56(25.1%)	47.86	11.73	b		
	상	77(34.5%)	32.10	10.70	c		

\* P<.05 \*\* P<.01 \*\*\* P<.001

· '상' > M+1/2 SD · M-1/2 SD ≤ '중' ≤ M+1/2 SD · '하' < M-1/2 SD

2) 인터넷 사용 변수에 따른 인터넷 중독

인터넷 사용 변수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인터넷 사용 변수 중에서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인터넷 사용 빈도, 한번 인터넷을 접속하면 걸리는 시간, 인터넷 평균 사용 시간(일주일), 이용 목적, 주 접속요일, 인터넷 이용 장점, 이용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터넷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 집단이 거의 사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인터넷 중독 점수가 두 배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한번 인터넷을 접속하면 3시간 이상 걸리는 집단이 1시간이내 집단이나 1-3시간 이내가 걸리는 집단보다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주일간 인터넷 사용 총시간에 따라 중독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집단과 단

〈표 6〉 인터넷 이용 변수에 따른 인터넷 중독

(N=223)

독립 범주	변인	구분	종속		인터넷 중독성		
			N(%)	M	SD	D	F
	인터넷 사용 빈도(1주일)	거의 안함	12( 5.4%)	24.42	3.26	a	11.30***
		2 - 3일 미만	39(17.5%)	35.21	12.87	ab	
		3 - 4일 미만	20( 9.0%)	45.95	17.12	bc	
		4 - 5일 미만	20( 9.0%)	44.15	14.83	bc	
		5 - 6일 미만	31(13.9%)	44.23	13.38	bc	
		거의 매일	101(45.3%)	50.65	15.76	b	
	한번 인터넷을 접속하면 걸리는 시간	1 시간 이내	64(28.7%)	32.63	11.22	a	28.49***
		1 - 2시간 이내	89(39.9%)	45.40	13.48	b	
		2 - 3시간 이내	42(18.8%)	48.71	14.77	b	
		3 - 4시간 이내	17( 7.6%)	62.53	11.16	c	
		4 시간 이상	11( 4.9%)	65.18	18.79	c	
인 터 넷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 (일주일)	3 시간 이내	26(11.7%)	23.96	2.49	a	67.21***
		3 - 7 시간 이내	49(22.0%)	34.18	11.28	b	
		7 - 11 시간 이내	54(24.2%)	44.85	11.33	c	
		11 - 15 시간 이내	54(24.2%)	49.85	11.36	d	
		15 시간 이상	40(17.9%)	63.58	12.69	e	
이 용 변 수	이용목적	정보 획득	81(36.3%)	39.79	15.35	a	2.80**
		단지 시간을 보내기	5( 2.2%)	46.20	13.22	ab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4( 1.8%)	46.75	6.55	ab	
		친한 사람들과 대화	45(20.2%)	44.67	16.56	ab	
		스트레스 해소	23(10.3%)	49.35	16.30	b	
		재미있어서	65(29.1%)	48.75	16.46	b	
	주 접속요일	주중	21( 9.4%)	36.33	14.25	a	8.49***
		주말과 공휴일	118(52.5%)	42.61	14.73	a	
		거의 매일	84(37.7%)	49.81	17.21	b	
	이용장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99(43.9%)	41.86	14.60	ab	3.88**
		학습에 도움이 된다.	19(8.5%)	36.68	17.16	a	
		대인관계를 형성	43(19.3%)	49.07	16.51	c	
		스트레스를 해소	58(26.0%)	47.91	17.17	bc	
		기타	4( 1.8%)	55.50	10.75	c	
	이용유형	정보 탐색형	34(15.2%)	30.71	10.80	a	19.23***
		대인관계추구형	80(35.9%)	44.73	16.03	b	
		게임 오락형	109(48.4%)	49.06	15.44	b	

\*P&lt;.05 \*\*P&lt;.01 \*\*\*P&lt;.001

지 재미가 있어서 인터넷을 즐기는 집단이 정보획득을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보다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을 주로 접속하는 요일은 거의 매일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장점 변수에서는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집

단이 대인관계 형성한다는 집단보다 중독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 유형 중에서 게임 오락형 집단과 대인관계 추구형 집단이 정보 탐색형 집단에서 보다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서주현(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사용 목적에 따라 인터넷중독

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성에 따라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에 따른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기능 및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먼저 성에 따른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집단 친구 수, 이성 친구 수, 통신상의 친구 수, 가장 친한 친구, 친구관계의 상호작용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성에 따른 친구관계의 기능과 만족에 대한 차이는 성에 따라 정서안정, 친밀감, 인정, 갈등, 친구관계의 만족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및 중독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인터넷 사용 기간과 한번 인터넷을 시작하면 걸리는 시간, 이용 장점, 이용 단점, 이용 유형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이용 변수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먼저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 친구 변수보다 통신 친구 변수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차이를 나타냈다. 즉, 통신상의 친구 수, 통신상의 이성 친구 수, 인터넷 친구에 대한 만족, 스트레스를 해소 할 때 만나는 친구, 기능(도움, 갈등), 만족도에 따라 중독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변수 중에서는 인터넷 사용 빈도, 한번 인터넷을 시작하면 걸리는 시간, 인터넷 평균 사용 시간, 이용 목적, 주 접속요일, 이용 장점, 이용 유형 변수간에 중독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인터넷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도록 인터넷 이용 시간이나 방법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청소년 스스로가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주의할 점을 가르치고 효과적인 이용 방법 등을 현실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해주는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들은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만나는 친구, 가장 친한 친구 모두 인터넷상의 친구보다는 실제 친구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생활의 친구가 청소년에게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실제 생활에서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제 생활에서 보다 친구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 중독은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인터넷 이용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용 빈도가 높거나, 1회 사용 시간과 전체 사용 시간이 많은 청소년뿐 아니라 게임오락형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체계적인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대부분의 청소년이 단짝 친구, 친한 친구, 집단 친구가 있으며 친구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긍정적인 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단짝 친구, 친한 친구, 집단 친구가 없는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기의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심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친구가 없는 청소년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필요하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친구들로부터의 도움을 낮게 지각하고, 친구와의 갈등이 심한 집단과 친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서, 실제 생활상 친구관계에서의 문제점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친구간의 갈등을 줄이고 친구관계에서

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올바른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섯째, 인터넷 사용목적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 또는 게임·오락형의 집단에서 정보탐색형 집단보다 인터넷 중독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서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게임·오락 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 탐색 등의 유익한 활동을 통해서도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도시와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더욱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친구 관계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친구와 통신상의 친구가 어떤 측면에서 인터넷 중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셋째, 인터넷 이용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이용한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보다 타당한 유형화를 위해서는 세심한 분류 기준이 요구된다고 본다.

넷째,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인터넷 중독 자임을 감안 할 때, 학교와 가정에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 ■ 참고문헌

- 김미란(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영(1999). 통신중독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운(2000).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학교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주한(1996). 사이버닥터가 진단한 인터넷 신드롬. 과학동아, p54-58.
- 나은영, 마동훈, 김철규(1999). 인터넷·PC통신 몰입 수준에 따른 행동양식의 차이.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 도현심(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 거부 및 우정 관계와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1(1), 307-322.
- 라민오(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정혜(2000).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배선영(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 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재현·최보가(2001).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질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59-171.
- 서주현(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재은(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54-165.
- 손성원(2002). 중학생 인터넷 중독의 실태조사. 대구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 서울 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소남(1996). pc통신 이용자의 통신중독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미(2000). 아동의 외로움과 형제 및 친구 관계의 질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윤영민(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

- 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 2차 정책포럼 인터넷시대에 있어 청소년문제와 대책 : <http://www.youth.go.kr>에서 발췌.
- 이병국(1999). pc통신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형성에 관한 연구-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1999).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0(3), 77-95.
- 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0(2), 225-249.
- 이주연(2000). 일반청소년과 통신중독 경향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아정체감 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연(1994). 청소년 또래 문화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 155-173.
- 조남근·양돈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세명논총*, 제8집(1), 111-133.
- 조춘범(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 보호 위원회(2000). 인터넷 시대에 있어 청소년 문제와 대책. [www.youth.go.kr](http://www.youth.go.kr)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2). 인터넷이용자수 및 이용행태 조사. [www.nic.or.kr](http://www.nic.or.kr)
- 한국인터넷정보문화센터(2000).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급증요인 분석. 한국인터넷 정보 문화 센터.
- 한복희(2001). 인터넷 중독 정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한국일보(2000). 재미한인사회 '인터넷 중독' 학부모 속타. 2000. 8. 30.
- 홍경희(2002). 중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가정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황리리(1996). 컴퓨터 통신 이용에 나타난 청소년하위문화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수정(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진구(1999). 청소년 인터넷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Adams, G. R. & Blieszner, R. (1994). An integrant conceptual framework for friendship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163-184.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 Keefe, K. A.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1312-1329.
- & Miller, K. A. (1993). The assessment and correlates of adolescences' friendships. Unpublished manuscript, Purdue University.
- & Perry, T. B. (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40-648.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2.
- Goldberg, I. K.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cmbc.com/mlists/research>
- Gunn, D. A. (1998). Internet Addiction. Projected Presented to the University of Hertfordshire, UK. World Web. URL : // 147. 197. 152. 160 / netquest / ALL-VER6. html
- Hartup, W. W.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hips. in B. Laursen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Close friendships in adolescence* (pp. 3-22). SanFrancisco : Jossey-Bass.
- & Stevens, N. (1997). Friendships and

- adaptation in the life course. *Psychological Bulletin*, 121(3), 355-370.
- Homefolk, S. E. & Stokes, J. P. (1988). The process and mechanics of social support. In S. Duck(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New York : John Wiley & Sons.
- Mendelson. M. J. & Aboud. F. E. (2000).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2).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Young, K. S.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 A cau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y Reports*, 79, 899-902.
- (1999). Inter Addiction :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 A Source Book*. 17 : [http : // www.netaddiction.com](http://www.netaddiction.com)에서 발췌 (2000). 김현수 옮김. 인터넷 중독증. 서울 : 나눔의 집.
- (2003년 10월 17일 접수, 2004년 1월 16일 채택)